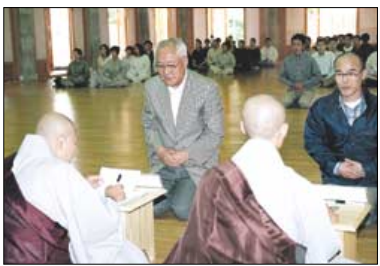




산발을 마친 남녀 행자 52명은 1.5km에 달하는 '전나무 숲길'을 세걸음 걷고 오체투지로 절하는 삼보일배를 했다.



9월13일 입교 후 갈마를 받고 있다.



9월14일 열린 식발식.



오계를 받는 남녀 행자들.

월정사 단기출가 입교 현장

2002년 붓다뉴스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불자의 93%가 한 번쯤은 꼭 출가를 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세속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삶을 사는 것은 불자라면 누구라도 해 보고 싶은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잡혀 사노라면, 그처럼 결심하고 실천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여기 남녀 26명씩 52명의 재가불자가 한달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기간 동안 출가 수행자와 똑같은 생활을 지원했다. 월정사(주지 정님)가 9월 13일~10월 12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교한 단기출가학교. 13일 입교한 제1기생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월정사에서 행자 교육을 받는다.



발우공양을 위해 '식사작법' 배우고 있다.



월정사 1기 단기출가생들이 공양을 끝낸 후 발우를 닦고 있다. 이들은 10월12일까지 한달동안 월정사에서 스님과 똑같은 '출가' 생활을 한다.

속세의 옷 벗고 돌아보니 나는 누구?

52명 재가불자 행자복에 머리깎고 한달간 수행자 생활

삶의 큰 변화(입교)

9월 13일 오후 오대산 월정사.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모자를 꼭 눌러 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든다. '누구나?' '어디서, 왜 왔나?'고 물어오 돌아오는 대답이 없다. 단기출가학교에 왔다고 하면 고개만 끄덕인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군 제대 후 곧바로 단기출가학교에 입학한다는 홍인창(23) 씨는 "군에 있는 동안 꼭 한번은 스님처럼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쉽게 이뤄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기뻐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입학식에 참석한 심미숙(33) 씨도 "아직 진짜로 출가할지 정하지는 못했지만 스님처럼 사는 일이 내 삶에 큰 변화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병아리 행자들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출가의 첫 관문은 '갈마'다. 건강여부 인생관 신앙심 출가동기 등을 물어 절 생활 적응 가능성을 판정한다. 뻔뻔한 행자 생활을 견디려면 보통 정도의 건강함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갈마를 마친 스님들이 입학생 중 3명 정도가 행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스님들은 1시간 가까이 이들의 합력 불합력을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인일과 타성에 젖은 몸 '놓아라' (고불식)

13일 오후 행자로 입교했음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이 봉행됐다. 월정사 주지 정님 스님은 "청나라 순치 황제는 출가를 하며 '황금옷을 입고 천하를 다스리는 일보다 가사를 입고 출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내용의 시를 지었다"고 출가하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식발염의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행자생활을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인일과 타성에 젖은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진정한 출가 의미를 가슴 속에 담는 기회

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무명의 죄업 씻어 버리고...(식발·삼보일배)

이번 단기출가학교의 특징은 스님처럼 식발을 한다는 것이다. 출가 이틀째인 14일 새벽 4시 식발식을 앞둔 행자들은 적광전 부처님 앞에서 새벽 예불을 올리며 무명 덩어리를 벗어 던지겠다는 다짐을 했다.

새벽 예불은 식발식으로 이어졌다. 26명 남 행자들은 입학 때 전원 식발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여 행자들도 4명이 식발을 자원했다.

"음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남녀 행자 52명이 모두 지그시 눈을 감고 '탐진치'의 무명을 씻는 죄업을 참회하기 위한 참회진언을 외우는 가운데, 머리 카락이 푹푹 잘려나간다.

최종대(29) 씨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드디어 내가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됐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식발식 후 부모님과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행자들은 식발 결의를 한 번 더 다지기 위해 식발탑을 참배했다. '무명초(無明草)'를 잘라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것마저 식발탑 아래 파묻었다. 행자들은 다시 헛된 망상이 빛은 내 죄업을 참회하기 위해 식발탑에서 팔각구종탑에 이르는 1.5km의 길을 세 걸음 걷고 오체 투지하는 삼보일배로 지나갔다.

"반드시 계를 지키겠습니다"(수계)

행자들은 14일 오후 5시를 받기 위해 적광전 안에서 장례합장을 했다. 수계법사 정님 스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계를 지키겠다"고 묻고, 그때마다 행자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계를 지키겠습니다"며 서약했다.

정님 스님은 남녀 행자들에게 수계증과 발우를 전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맑고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다. 연비까지 마친 남녀 행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오대산 연화봉 적멸보궁을 참배했다.

좌선·독송·율력...빈뇌 있고 절생활(습의)

절 생활 삼일 채로 접어드는 9월 15일, 남녀 행자들은 절 생활의 수행 일과, 행동거지, 사찰 의식 등을 배우는 습의과정에 들어갔다. 간단한 예불의례를 먼저 배웠다. 차수법, 좌법, 합장, 안행, 발우공양 한 가지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소인과 율력도 각자 나눴다.

조석예불과 공양에 한번 불참하면 벌점 2점이고, 15점이면 예의 없이 없이 퇴방을 당한다. 남녀 행자들은 10월 12일까지 새벽 4시에 기상해, 좌선 발우공양, 소인법 율력, 사시예불, 불교 교리 공부 등을 한다.

■ 취재 후기

이번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는 사회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불자들이 많다. 회사원 강진환(36) 윤여희(36) 씨를 비롯, 현직 교사인 강영훈(50) 씨 등은 특별히 1개월 휴직을 한 후 참석했고, 자영업자인 김경자(40) 씨 등도 약국 등 일터를 1개월간 닫고 월정사에 왔다.

단기출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모 건설업체 부회장을 퇴직한 송광섭(69) 거사가 최고령자로 기록됐고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은 대구 오송중 문경원(14) 군이다. 이번에는 아내가 단기출가학교에 입학하고 다음 2기에는 남편이 입학하기로 약속했다는 부부도 있었다.

이번 1기 참가자 52명 중 11명은 정식 출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월정사는 정식 출가를 원하는 사람을 조계종에 행자로 등록시켜 교육을 시킬 방침이다. 월정사는 매해 4~5회씩 단기출가학교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2기 단기출가학교는 11월 8일 개교한다.(033)332-6661-5
월정사=강유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사주박사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 사주박사 (www.drsoju.com)는...

-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입니다.

운명 · 미래 · 삶 · 창

www.drsoju.com

프로 사주박사를 위한
역학전문 온라인 아카데미

1.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학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
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중로구 은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